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1.3

0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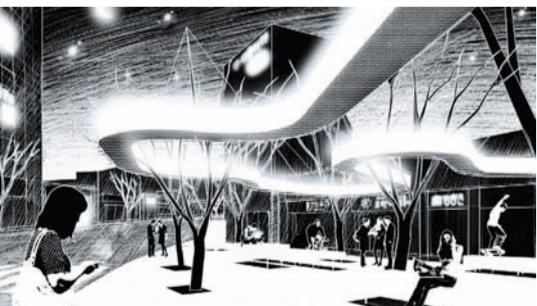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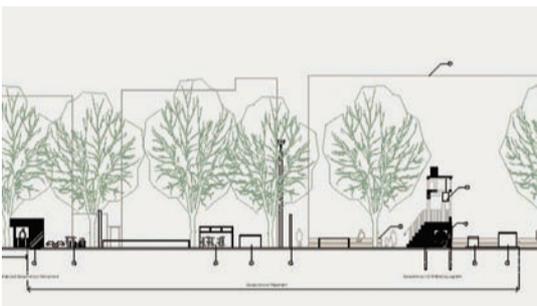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어번폴리 프로젝트, 광주 옛 도심에 활력을...

Urban Folly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 심상봉 건축사 당선

전남대학교 박물관 정기용 건축展 개최



시론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들_양동협
 광주의 건축 '이야기'를 듣고 싶다_김미은

협회소식
 취임사_ 광주건축사회 제13대 심상봉 회장

특별기획
 어번폴리 프로젝트, 광주 옛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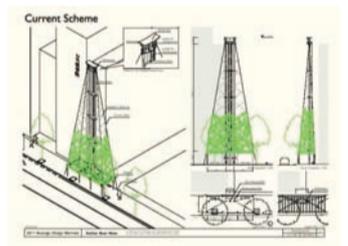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물위의 도시 '베네치아' _조용준

전통건축
 질병공동체 애양리마을의 형성과 공간변화_남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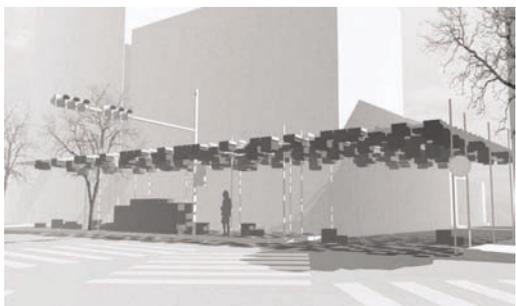
특별기고
 환경과 건축, 도시, 그리고 조경_윤기병

작품소개
 2010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전주우체국청사', '우진문화공간', '전주성결교회', '동화속 어린이집'

사람 & issue
 그림 그리는 건축사 _김유지



圖可圖非常圖
 design.is.design.is.not.design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할 일들



작은 실천들이 이제부터라도 모아져서 우리사회의 존경받는 건축인, 건축단체로 거듭나기를...

양동협 건축사
(주)한길종합 건축사사무소

광주의 건축은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양적팽창 위주의 정책으로 예술적이고 수준높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 고유 정체성은 사라졌고 조화롭지 못한 도시경관, 국적불명의 건축 외관, 획일적인 시설물의 출현으로 자랑할만한 도시와 건축문화를 아직까지 갖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현 시장님의 취임과 동시에 '광주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이 도시정책의 목표가 되어있다.

우리가 건축물을 아름답고 지역색 있게 설계하고, 그것들이 쾌적한 도시경관과 환경으로 조성해 가면 우리 광주도 광주다운 건축문화가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건축인들이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먼저 광주의 건축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의 경우 인사정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한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차피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건축정책 부서에 장기간 근무를 하게 배려해야 한다. 또한 일관성있게 장기계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만이 광주건축의 미래를 기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정기적인 순환 보직으로 항상 새내기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건축정책을 수행해 간다면 우리 광주는 항상 그런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다.

협회도 이젠 우리만의 이익집단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와 봉사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의 존경받는 단체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전문건설협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프로그램이 있다면, 광주건축3단체연합회에는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그램이 몇 년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나 도시 시설물에서 노약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장애요소를 제거해주는 프로젝트다. 이는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연계되어 있어 앞으로 관심을 두고 잘 가꾸어 나간다면 참으로 좋은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음은 건축학도가 있는 대학교수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다. 학교마다 작품전이 열릴때 학생과 교수님들이 가능하면 같이 참석하여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유기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행사로 끝내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학교마다 유명 건축인들을 초빙한 특별강연에 참여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무엇보다 어렵게 모신 건축인 선배들의 귀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놓치지 않게 여러 교수님들께서 상호 배려하고 권장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이제부터라도 모아져서 우리사회의 존경받는 건축인, 건축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해본다.

광주의 건축 '이야기' 를 듣고 싶다.



우리집 인근에 세워진 빌딩이, 내가 늘 다니던 스포츠 센터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 이야기를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듣는다면...

김미은 기자
광주일보 문화생활부

최근 2004년에 떠났던 일본 여행 사진을 다시 꺼내 볼 기회가 있었다. 지난 2월 광주 시청에서 진행됐던 '어번 폴리 프로젝트(Urban Folly Project)'에 참석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였다.

여행 당시 우리가 좋아했던 곳 중의 하나가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이었다. 나무로 짜여진 터미널 옥상은 참 독특했다. 그곳에서 따뜻한 가을 햇살을 맞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난다.

친구가 반갑게 전화를 한 이유는 페리 터미널을 설계한 알렉산드로 자에라 폴로가 이번 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접해서였다. 그는 금남공원에 조형물을 세울 모양이었다. 기자와 친구에게 '공간'과 '건물'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줬던 그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또 어떤 행복감을 전해줄지 궁금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지역에서도 도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별 실효는 없어 보이지만 간판 정비 사업도 속속 진행되고, 의도를 알 수 없는 국적 불명의 상징물들이 도심에 채워나가고 있기도 하지만 방향성의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도시의 '얼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일단 반가운 일이다.

사실, 생활에 쫓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공디자인이나 건축물에 큰 관심을 두기 어렵지만 이번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번 폴리 프로젝트가 이 같은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길 기대해 본다.

아주 오래전 우리 신문 문화면 고정 칼럼 중 '내 인생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그때 한 건축사가 추천한 책이 서현의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였다. 2년 가까이 코너 담당이었던 기자가 접한 100여권이 넘는 다양한 장르의 추천작 중에서 '나도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은 이 책이 거의 유일했다. 서현의 책은 건축에 문외한이었던 기자가 건축이나 공공디자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

요즘 매주 문화부에는 각 출판사에서 100여권의 책이 배달된다. 최근 부쩍 늘어난 분야가 건축 관련 서적이다. 임석재, 조원용, 이용재, 황두진씨 등 국내 건축가들의 책도 많고, 안도 다다오 등 해외 유명 건축가들을 다룬 책도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다. 대개 매주 20권 정도의 책을 지면에 실는데 건축 관련 책을 접할 때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낙수장 등 외국의 유명 건축물을 소개하는 책들은 지면에 소개하기 쉽다.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의 건축물을 다룬 책은 일단 멈칫하게 된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 우리 지역 건축물에 대해 찬찬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은 왜 좀처럼 출간되지 않을까. 우리집 인근에 세워진 빌딩이, 내가 늘 다니던 스포츠 센터가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 이야기를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듣는다면 좀 더 많은 이들이 건축과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번 폴리 프로젝트' 작품이 공개되는 가을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작품이 들려서는 장소들은 기자가 근무하는 회사 인근, 출근길 등 대부분 생활반경에 속하는 곳들이다. 가을, 거리 곳곳에서 원하지 않아도 매일 보게 될 '그것들은' 즐거움이 될까, 괴로움이 될까.



럭시움에너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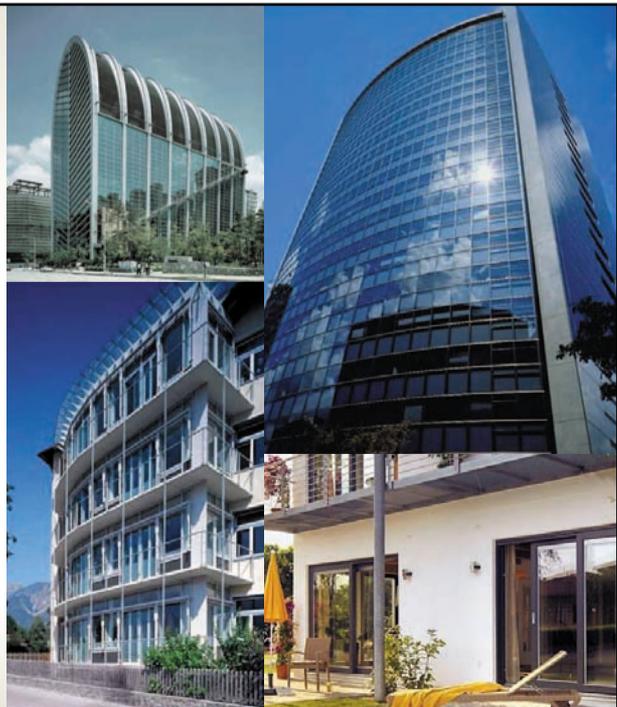
BIPV 태양광 전문업체
엘지 Z:IN 창호 전문업체

알파시스템창호는?

커튼월, 단열창호 전문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정부조달등록업체

다양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로
견고하게 제품들을 시공합니다.

ALFA 알파시스템창호
ALFA SYSTEM WINDOWS&DOOR
www.alfawindow.co.kr
TEL 062) 943-6801, 6802
FAX 062) 943-6809



광주건축사회장 취임사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광주건축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심상봉 건축사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

창밖으로 보이는 상수리나무 꼭대기에도 제법 파릇파릇 새로운 움이 피어 납니다. 이렇듯 새로운 봄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나 봅니다. 얼마전 치른 선거에서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으며, 즐겁게 경쟁하며

일할수 있는 꿈을...

내가 정년이 되었을때에 내 남은 삶이 더욱 아름다워 질 수 있으리라는 꿈...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우리 건축사가 다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꿈...

꿈을 꾸는 자가 현실에 맞서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은 채 희망과 망상을, 포부와 허세를 구분해 낼때 그리고 결과를 이웃과 공유하려고 할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꿈의 결실은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화답과 나눔의 소산이라고 합니다.

모든 회원들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꼭 그 꿈을 우리 모두의 꿈으로 만들것입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 이미 말씀드렸던 사안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_ 복지과 교육을 위하여 · 장학금 및 복지금 확대 실시 · 회원여가 지원 사업 실시 · 지속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용

둘째 _ 생존권 확보와 미래를 위하여 · 광주시와 협의 광주시 발주 건축설계 물량의 지역 건축사무소와의 협약 요청 · 회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 · 2012년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를 위한 실무팀 구성

셋째 _ 회원들의 소통을 위하여 · 시민사회와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강화 · 현 사무국 및 신협 기능, 업무시스템 개선 · 회원들의 불편사항 접수 등 분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타 선거기간중 타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점검하여 광주만의 특징이 있는 건축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집행부에 거는 기대를 보답하겠습니다. 선거 기간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여러분의 질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건축사회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 제13대 회장으로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심상봉 건축사 선출



250여명의 건축사들이 참석한 광주정기총회



조영표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신정철 회장

향후 2년간 광주건축사회를 이끌어갈 제13대 회장이 지난 3월 4일 광주건축사회 제24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다.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재적 회원 267명 중 217명이 출석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29대 회장으로 선출된 강성익 건축사가 참석하였으며, 광주 시 도시디자인국 홍기남 국장, 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 조영표 위원장,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강남구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창을 부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회장으로 믿고 따라주신 선,후배, 동료 건축사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 인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 광주건축사회를 위해 끊임없는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장은 축사(광주시 도시디자인국 홍기남 국장 대독)를 통해 "창조적인 광주 건축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건축사 여러분의 제24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며 "제13대 회장단을 선두로 우리도시의 건축문화 육성과 발전에 큰 역할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표창패 수여식에서는 동아인재대학 건축학부 남승진 교수가 본협회 강성익 회장으로부터 대한건축사협회장의 감사패를 수여받았으며, 광주 시의회 산업건설분과위 조영표 위원장과 광주시 교통시설과 안용훈 지방시설 사무관, 광산구 건축과 김영균 건축과장, 북구 건축과 심재문 지방시설 주사보, 동구 회계과 이안수 지방시설 주사보가 신정철 회장으로부터 광주건축

사회장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대표를 비롯한 6인의 건축사가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23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 감사 보고를 마친 후 기송부된 3개의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일괄 상정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그 중 제3호 의안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은 안태경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진행하였고,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회장선출에 있어서는 1차 투표결과 유효투표 수 210표 중 기호1번 심상봉 후보 92표, 기호2번 김후진 후보 63표, 기호3번 강석훈 후보 55표를 득표하여 다득표자 2인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효투표 199표 중 기호1번 심상봉 후보 118표, 기호2번 김후진 후보 81표를 득표하여 심상봉 후보가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감사선출에 있어서는 유효투표 210표 중 기호1번 정상채 후보 100표, 기호2번 조휴환 후보 110표 득표로, 기호2번 조휴환 후보가 유효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협회 및 신협 감사로, 정상채 후보를 협회 이사, 신협 감사로 선출하였으며, 임기 2년의 이사로 김권수, 김선영, 신찬균, 정명철 이사를 선출하였다. 또한 임기 2년의 대의원으로 김용주, 김희현, 신정철, 박홍근, 이혜란, 장정수 회원을 심상봉 회장 당선자의 임기 1년 대의원으로 안길전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심상봉 건축사는 2011년 3월 14일자로 2년간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제29대 강성익 회장 취임

- 본협회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전북건축사회 우수단체 표창



대한건축사협회 제29대 강성익 회장



단체표창을 받은 전북 이성업 회장(오른쪽 첫번째)

대한건축사협회 제29대 강성익 회장이 지난 3월 7일 서울 본협회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계 인사 및 정부 인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2월 25일 동강소에서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제45회 정기총회때 상정된 부의안건 5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에서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영수 후보자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유효투표 417표 중 과반수 이상인 220표를 얻어 197표 득표에 그친 김영수 후보자를 누르고 대한건축사협회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북건축사회는 2010년 각종 행사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은 물론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우수단체 표창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전남건축사회, 3월 16일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제26대 회장 선거 후보자로 윤문곤 現부회장 단독입후보



윤문곤 건축사

전남건축사회는 오는 3월 16일 수요일 12시,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필레모 호텔' 3층 연회장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을 비

롯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상정된다.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고를 거쳐 이번 26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로 윤문곤 現부회장이 단독 출마하였으며 별 이견없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건축사회, 3월 17일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제24대 회장 선거 후보자로 이성업 現회장 단독입후보



이성업 건축사

전북건축사회는 오는 3월 17일 목요일 10시,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상정된다.

특히 제24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지역회장 1명, 대의원 9명을 선출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에 전북지역건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장 선거 입후보자로 이성업 現회장이 단독 출마하였으며 별 이견없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번폴리 프로젝트, 광주 옛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는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뜻의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도심재생의 건축적 방법론으로서 어번폴리를 제안하였다. 어번폴리의 사전적 의미의 폴리와는 달리, 파빌리온(Pavilion)의 공간과, 광주라는 도시(Place)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담아내며, 도시 공공영역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지니고 광주 시민들이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 만들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세계적 건축가들이 광주 옛 도심에 어번폴리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며, 건축문화사랑에서는 이번 지면을 통해 시민들에게 광주 옛 도심의 변화될 모습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17일, 시민보고회를 통해 광주읍성터를 따라 설치하기로 한 어번폴리 기본 디자인을 공개했다. 2011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인 승효상 건축가는 "이 프로젝트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건축물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고 디자인도시 기반 구축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낙후한 옛 도시를 활성화하고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개국 12명의 세계적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작년말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의 작품들은 올해 5월경 착공하여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1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하는 9월 2일 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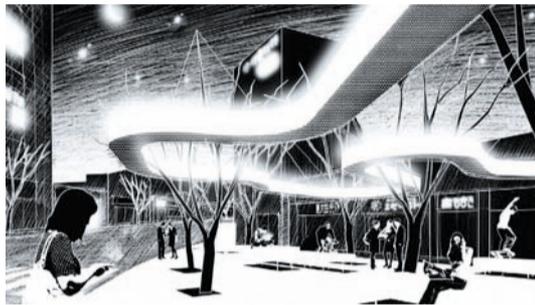
• 어번폴리 설치 장소



1 장동 교차로



후안 헤레로스 (Juan Herreros) / 스페인
 · 소 속 : Herreros Arquitectos 대표
 · 주요 경력 : 마드리드 건축학교 논문 프로그램 디렉터(교수), 마드리드 시 도시건축상 COAM상 수상
 · 주요 작품 :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스페인관, 뭉크 박물관(오슬로, 노르웨이)



장동 교차로의 어번폴리는 소쇄원과 한옥의 굴뚝 이미지 등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과의 공존, 열린 공간 등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곳의 나무들은 도시 내의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형물 디자인의 형태는 나무 윤곽이 가지는 패턴에서 차용했다. 나뭇가지를 가로질러 곡선의 형태로 설치된 조형물은 조명, 음향기기, 난방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바닥은 기존의 물체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바닥재로 재정비 된다. 그 위로 단순한 의자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2 제봉로 김재규 경찰학원 앞



플로리안 베이겔(Florian Beigel) / 독일
 · 소 속 : Architecture Research Unit(ARU) 대표
 · 주요 경력 :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수, 2002 - RIBA Tutor Prize 수상
 · 주요 작품 : 열화당-헤이리 G39-2, 오키오 주립대학 웨스턴 시각예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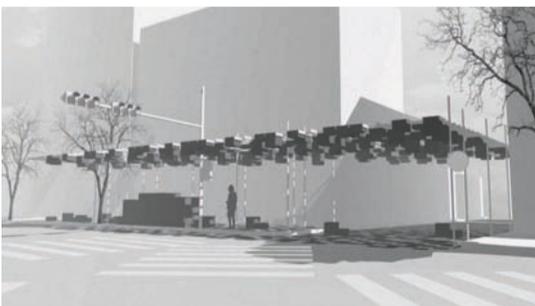
조형물의 컨셉은 '서원문(誓願門) 제등'이다. 즉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곳에 설치된 제등으로서 공공장소의 등불과 같은 구조물을 건립하려 한다.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매일 일상의 장소로 여겨지는 장소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김재규 경찰학원 건물은 옛 광주문화방송 건물로 그 앞에는 작은 5.18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폴리는 5.18의 역사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집이 되어 줄 것이다.

6 광주세무서 4거리



정세훈 · 김세진 / 한국 (현상설계 공모 당선자)
 · 소속 : 오우재 건축사사무소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인 '열린장벽'은 도시와 소통하고 현재의 삶과 광주읍성의 오마주를 간직한 성벽을 제안하였다.

길 위 조각과 3m 위에 떠 있는 오브제는 예전 읍성의 일부였던 돌을 표상, 바닥과 천장의 두층의 공간적 범위는 옛 읍성의 영역 표시, 과거 닫힌 장벽에서 현재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열린장벽으로 복원하였다.

7 황금동 골박스 사거리



조성룡 / 한국
 · 소 속 : 조성룡 도시건축 대표
 · 주요 경력 : 2003 김수근 문화상, 2006 베니스비엔날레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 주요 작품 : 서울 선유도 공원 설계, 용인 지앤아트스페이스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 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폴리를 설계하고자 했다. 주변에 작은 골목길이 많다는 데 착안하여 도심 재생을 아주 작은 주민 쉼터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 폴리를 구상했다. 신라시대부터 도시를 이루며 격자패턴의 구조를 지닌 광주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도시이다. 특히 황금동 옛 읍성터는 4거리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하늘로 엮이게 솟은 4개의 기둥 구조를 폴리의 기본 구상으로 삼았다.

도가도비상도

디자인이,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유명 Named (100 Names) : 총체적 환경의 디자인을 이끈 100명
 무명 Un-Named : 디자이너가 없는 확장된 개념의 디자인?
 문화도시거점 Urban Follies : 광주 시내 10곳의 장소에 세워질 공공시설물



2월 17일 시민보고회

③ 대한생명 사거리



나데르 테라니(Nader Tehrani) / 미국

- 소 속 : Office dA, Inc. 대표
- 주요 경력 : 2007~현재 - MIT 건축과 교수
- 주요 작품 : 카이스트 설계(대전, 한국), 새만금 (Alexander D'hooghe와 공동작업)(한국)



주변 지역의 저변시설이 이미 확보되어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된 상태여서 새롭고 상징적인 의미 부여가 불가피했다. 교차로 코너의 자연미를 살리면서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와이어와 봉을 이용, '하늘을 향한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기존 건물의 벽과 나무가 공존하며 융화되는 아케이드 형태의 폴리가 탄생했다. 디자인의 모티브를 나무에서 따와 주변 도로에 나무가 늘어서 있고 도시 조형물과는 대치되게 했다. 옛 읍성은 외부와 내부를 구분했으나, 폴리는 다양한 삶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④ 금남 공원



알레한드로 자에라-폴로 (Alejandro Zaera-Polo) / 스페인

- 소 속 : Foreign Office Architects 대표
- 주요 경력 : 프레스턴대학 초빙교수
- 주요 작품 : 런던 올림픽 주경기장 설계 (영국) 존 루이스 백화점 건물 (영국)



자연적인 방벽과 마찬가지로 계단식의 구조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연을 하는 시민 참여공간이 될 것이다. 현재 공원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차단되어 있는데, 벽을 제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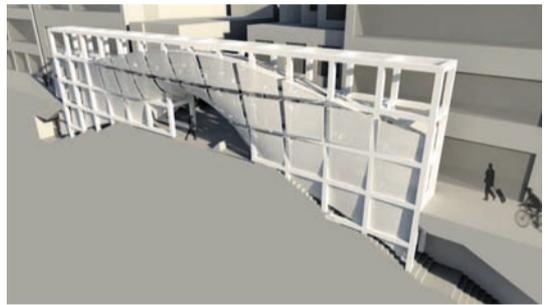
사람들이 즐기는 공원과 인도를 연결시켜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될 것이다.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음양의 조화에서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광주의 격동적인 역사와 과거의 기억이 요동치는 듯 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⑤ 충장로 파출소



피터 아이젠만(Peter D. Eisenman) / 미국

- 소 속 : 건축 도시계획 연구소(AUS) 운영
- 주요 경력 : 1982~1985 하버드대학교 교수, 1991~1993 미국건축가협회(AIA)상
- 주요 작품 : 오하이오 주립대학 웨스너 시각예술센터, 신시내티 대학 아르노프 센터



폴리의 유연한 구조는 빛이 비치면 광택이 나면서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기여한다. 뒤틀린 형태 때문에 폴리구조물의 안쪽으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의 공간이 형성되며, 계단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통로까지 덮고 있는 폴리는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허문다.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폴리 구조물로 둘러싸인 공간에는 벤치가 설계될 예정이다.

⑧ 구시청 사거리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 / 프랑스

- 소 속 : 건축 도시계획 연구소(AUS) 운영
- 주요 경력 : 1982~1985 하버드대학교 교수, 1991~1993 미국건축가협회(AIA)상
- 주요 작품 : 오하이오 주립대학 웨스너 시각예술센터, 신시내티 대학 아르노프 센터



구시청 사거리는 상업지구로 유동인구가 많아 오픈된 형태의 박스 구조로 설계하였다. 폴리는 사거리의 가운데에 건립되며, 사방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주변의 어지러운 환경과 도시의 소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폴리 구조는 누각에서 차용했고 포장마차의 구조가 될 것이다. 황금색은 폴리는 LED 조명을 넣어 주변 상가들의 야간 조명과 조화를 이뤄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것이며, 오픈된 형태의 박스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⑨ 문화전당



프란시스코 산인(Francisco Sanin) / 미국

- 소 속 : 시라큐스 건축대학원 학과장
- 주요 경력 : 2002~2007 - 한국예술종합학교 방문교수, 2003 - 해인사 신행, 문화도량공모전 당선작 (협업: 조성룡도시건축)
- 주요 작품 : 서울 Waldhaus 개발 프로젝트, 전주시학생회관



문화전당 옆 버스승강장은 구 시가와 새로운 문화전당 타운이 만나는 접점이다. 따라서 이 곳의 폴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장소적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단한 계단과 유리벽으로 구성된 폴리는 자유자재로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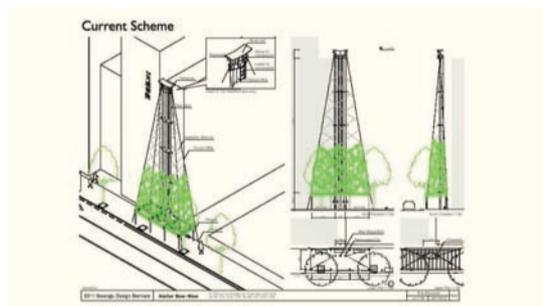
폴리는 작은 극장이 될 수도 있고,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투명한 유리를 통해 구 시가지를 들여다보는 역사의 창으로써, 또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행사도 구경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⑩ 대성학원 앞



요시하루 츠카모토(Francisco Sanin) / 일본

- 소 속 : 아틀리에 바우아우
- 주요 경력 : 2003, 2007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2002 - A merican Wood Design Awards
- 주요 작품 : 마치야 타워, 이쿠시마 도서관



잠망경을 구조물 플랫폼의 25m높이에 설치하여, 지상에서도 멀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동시에 두 명이 도시경관을 살필 수 있다. 폴리 구조 자체는 하나의 큰 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양쪽 부문에 잠망경이 위치해 기존 건물보다 높아야 한다.

하나의 기둥을 지지하기 위해서 4개의 케이블이 설치될 예정이다. 구조물 폴리에는 넝쿨나무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시간이 경과하면 나무로 된 구조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물위의 도시 '베네치아'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2010년 10월호)
2. 광장의 도시, 성당의 도시 '로마' (2010년 11월호)
3. 건축박물관 도시, 체코 '프라하' (2010년 12월호)
4. 천년의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1년 1월호)
5. 음악의 도시 '비엔나' (2011년 2월호)

이 글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월간 '조선대학교 소식'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재구성하여 제공하였으며 매 회 세계 각국 역사도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베네치아의 역사적 배경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북부지방 베네토주의 주도로써 118개 섬과 150여개 운하, 400여개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물위에 떠 있는 역사 도시이다. 특히 총 3.8킬로미터의 S자형 대운하와 이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작은 운하를 자동차를 대신한 곤도라가 골목길과 같은 좁은 운하를 질주하는 감흥의 도시이다.



베네치아 지도

또 세계적 명성의 베니스 영화제와 무도회, 비엔날레, 섹스피어의 희곡인 '베니스상인'과 '오셀로'가 도시품격을 높여 주고 있는 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동방 견문록을 써서 당시 유럽을 놀라게 했던 마르코 폴로와 수많은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던 바람둥이의 대명사인 카사노바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력의 베네치아는 침략자들의 위협을 피해서 바다 끝으로 도망 온 농민들이 697년에 리알토 섬을 중심으로 도시국가를 세우면서 시작되어,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약 천년 동안을 주민 스스로가 총독을 선출했던 도시국가였다.

이후 나폴레옹 치하에서는 이탈리아 왕국에 귀속이 되었다가 1866년부터는 이탈리아 왕국에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귀족풍의 화려한 저택들이 입지하고 있는 대운하에 이 도시의 상징인 바포 레트라라는 수상버스와 길고 날씬한 곤도라가 지나가는 모습은 아주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곤도라에 오르면 곤돌리에라고 부르는 사람이 불러주는 낭만적인 간소네를 들을 수 있는데, 중세시대에는 곤도라가 귀족들이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면서 경쟁적인 치장을 하게 되자 이후 국가가 이를 금지 시키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곤도라 정박장

까도로 저택과 리알토 다리

이처럼 운하는 베네치아의 생활근거이자 문화로서 역사적 유산의 대부분이 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데, 기차역에서 내려서 배를 타게 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물이 1420년에 부유한 가문의 저택으로 지어진 까도로이다. 당시 건물 외벽을 금박 칠을 했다고 해서 황금의 집으로도 불리우고 있는 이 집은 현재 회화와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프란체티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좀 더 가면 운하 폭이 가장 좁은 28미터 지점에 있는 리알토 다리를 만나게 된다. 섹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의 주요 무대이기도 한 이 다리는 원래 목조였으나, 1592년에 현상설계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아치형의 대리석 다리가 되었는데, 아카데미아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유일한 다리이기도 했다. 특히 베네치아를 연결하는 3개 다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평가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식료품 야채시장과 수산시장 등 각종 시장과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어 항상 관광객과 베네치아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다.



리알토 다리

아카데미아 미술관과 산마르코 광장

여기에서 대운하를 따라 조금 더 가면 1750년에 미술학도들의 교육장으로 설립되었다가,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뀐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미술관은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수도원 길드 등이 소유하고 있던 회화 800여점을 소장하고 있어서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술관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대운하가 끝나는 지점에 17세기 베네치아에 창궐했던 흑사병의 종식을 감사하기 위해서 건축가 롱게나가 설계한 8각형의 아름다운 썬타 마리아 살루떼 성당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성당은 밤에 산마르코 광장에서 바라보면 운하에 비치는 야경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여기에서 대운하를 따라 좀 더 가면 이 성당의 반대쪽에 이 도시의 초점이자 도시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는 산마르코 광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장은 원래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세운 약 100미터 높이의 시계탑이 있는 본 광장인 피아자와 작은 광장인 피아제타의 2개의 광장이 연결된 7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산마르코 성당쪽의 폭이 넓고, 반대쪽의 폭이 짧은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는 본 광장은 산마르코 성당 쪽에서는 광장이 더 넓게 보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느낌을 주고, 반대쪽에서는 원근법으로 성당 쪽이 더 가깝게 보이게 하는 중세의 전형적인 광장 설계수법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광장은 항상 거리악사들과 낭만적 저녁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떼가 뒤섞여 있는 베네치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자, 매년 중세시대의 의상을 입는 사람들의 독특한 가면과 의상을 뽐내는 가면 무도회가 열리는 무대로서 더욱 유명하며, 중세시대에는 가면 무도회가 억압과 권위로부터 자유스러워 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여서 베네치아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지배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되었다가 1970년에 시민들의 노력으로 재생되어 지금은 이 도시의 또 다른 경쟁력을 만드는 세계적 축제로 자리잡았다.

산마르코 성당과 탄식의 다리

광장주변에는 산마르코 성당을 비롯하여 두칼레 궁, 탄식의 다리 등 베네치아의 주요 역사물과 카사노바



산 마르코 광장과 두칼레 궁

등 당시의 저명인사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차를 마시던 긴 역사를 가진 카페들이 몰려 있다. 이중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의 복합양식의 산 마르코 성당은 829-832년에 2명의 상인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져 온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호성인인 성 마르코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건축한 성당이다. 베네치아가 번성하던 시대에 지어진 성당답게 매우 화려한 성당의 정면 위쪽을 장식하고 있는 네 마리 청동상은 십자군들이 터키의 이스탄불(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것을 가져 온 것의 모조품으로도 유명하며, 진품은 성당 안쪽에 보관되어 있다.

성당 옆의 바다에 열려 있는 피아제타를 마당으로 하고 있는 두칼레궁은 9세기에 총독의 성으로 지어졌다가 1577년 화재 후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어, 약 1100년 동안을 베네치아 총독의 공식 거주지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당시의 조각이나 그림은 물론,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궁에는 처음에는 재판소와 감옥이 함께 있었으나, 감옥이 궁 바로 뒤쪽에 있는 작은 운하인 리오디 팔라초 건너편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궁과 감옥 사이를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 같은 다리로 연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두칼레 궁에 있는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은 죄수들이 이 다리를 건너 감옥으로 가면서 아름다운 대리석 창문을 통하여 전개되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식했다고 해서 붙여진 탄식의 다리도 있다.

이 다리는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재판받고 감옥으로 건너간 다리로 유명한데, 그는 유일하게 탈옥에 성공한 사람으로도 기록되고 있기도 하다. 피아제타 광장이 끝나는 바다 쪽에는 기동꼭대기에 사자상과 엠마누엘레 2세의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는 2개의 흰 대리석 기둥이 있고, 그 앞 바다에는 동실 동실 떠있는 듯이 섬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우뚝 서 있는 16세기경 건축가 팔라디오가 설계한 하얀색의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이 있는데, 이곳에는 항상 이를 조망하면서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이들과 정박 중인 작은 배들이 섞여 또 다른 낭만을 만들고 있다.



탄식의 다리

리도섬과 부라노섬

이 외에도 남쪽에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는 국제적 휴양지이자 1987년에 영화배우 강수연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2002년과 2004년에는 이창동 감독과 김기덕 감독이 각각 감독상을 받기도 했던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리도섬도 가볼만 하다. 또 북쪽에 있는 유리공예의 본고장인 부라노섬도 볼만 하다. 이처럼 물위의 도시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풍경 이외도 많은 이야기 꺼리를 갖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인데,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이 매력적인 도시가 조금씩 가라 앉고 있다는 소식은 지구호에 함께 승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질병공동체 애양리마을의 형성과 공간변화

남호현 교수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0년 4월호(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교수 '21세기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부터 전통건축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이번 호에는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남호현교수의 '질병공동체 애양리 마을의 형성과 공간변화'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20세기 한국사에서 규모와 사회적 의미가 가장 큰 질병 공동체는 한센병 집단이었다. 한센병 환자들은 이른바 국립시설인 소록도 갱생원, 선교 환자 수용시설에 수용되거나 식민지 권력에 의해 포착되지 않은 자가 환자나 부랑 환자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폐쇄적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그러한 한센병 시설 가운데 대표적 예가 현재 전남 여수시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애양원의 모태가 된 애양리 공동체 마을이다. 애양원은 한센병 시설 가운데 자의성이 강했던 선교 시설이었다.

1923년 애양원의 전신인 광주나병원에 의해 훈련된 의료와 건축분야 인력이 부산나병원에 지원되고, 이들이 의해서 부산나병원의 건축공사와 직능별 기술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애양원은 당시 나병원 시설가운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애양원은 1960년대까지 그 대상의 주체가 한센병 환자였으나 현재는 일반 재활환자로 바뀌었다.



애양리 마을 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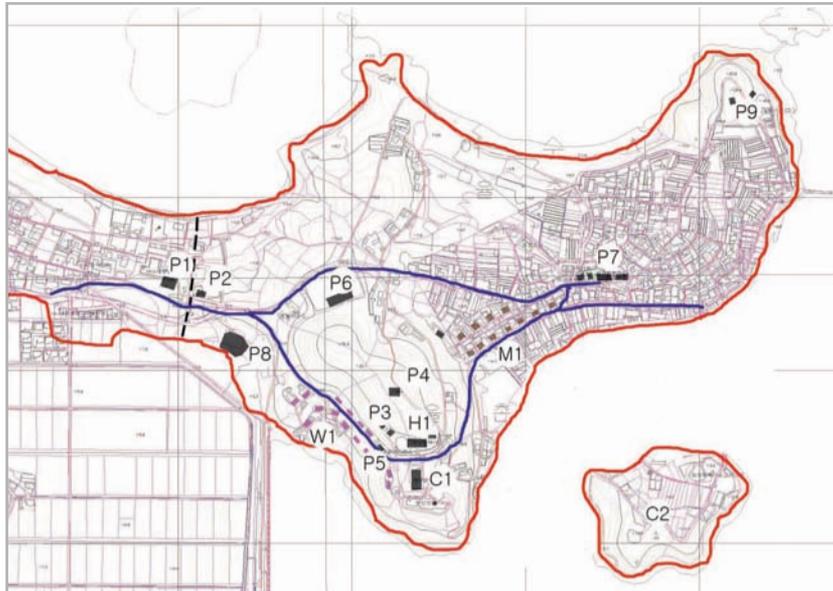
이처럼 국가적으로 격리 대상이 된 한센병 환자로 이뤄진 특수 공동체 마을의 형성 과정과 그 공간 변화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특징과 이들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한다. 현재 여수공항 확장과 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이라는 주변 여건의 변화 속에서, 이 글이 특수한 마을의 원형과 공간 변화 과정 속에 드러난 지역의 특성을 기초로 삼아 애양리 마을의 학술적 가치와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의 기초 자료로 삼았으면 한다.

애양원은 현 여수시와 순천시의 도심권으로부터 약 14~18km 떨어진,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남해의 광양만에 접한 애양원은 우리나라에서 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병원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다. 1962년 나환자 정착촌 사업 이후, 1976년 시작된 현 도성리 정착촌 사업지구는 마을의 원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의 변화 가운데, 아직도 마을의 구심 역할을 하는 교회와 애양원 역사박물관, 그리고 몇몇의 일부 시설은 그 용도와 쓰임은 바뀌었지만 아직 외형을 간직하고 있다.

애양리 마을의 형성(1926-1934)

마을은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미국 남장로회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의 나환자 구제물 계기로, 의료 선교사 윌슨의 나병원 설립으로 나환자들이 제도권에 수용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일반 대중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나병원은 여수로 이전되고 여기에서 애양원이 시작된다. 본부는 현 여수애양병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일반인과 나환자를 구분하는 중간지대에 있다.

언덕 남쪽으로 23동의 석조로 건축된 여자병사가 있다. 남자병사 지역과 여자병사지역 중간에 있는 고개 길 정상에 10개의 지하 공부방이 있는 교회, 버지니아 아서 병원과 진료소, 나환자 상점과 병원에 부속



<그림1> 1928년 애양원 배치도(현 지형도에 애양원 관내도를 참고로 저자 작성. P1본부, P2수위실, P3간호사 숙소, P4야외 계단극장, P5상점, P6운동장 및 1936년 극장, P7목수간교회, P8저수지, P9화장장, M1남자병사, W1여자병사, H1병원, C1교회, C2조승달 해변의 섬)

된 나환자 간호사 숙소가 3동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회의 지하 공부방은 주간학교로 사용되었으며, 이 학교에서 75걸음 떨어진 곳에 학교 아이들이 목수 일 등을 훈련받는 분과 사무소가 있고, 남자병사 지역에 목수, 양철공, 가죽공 등의 큰 분과사무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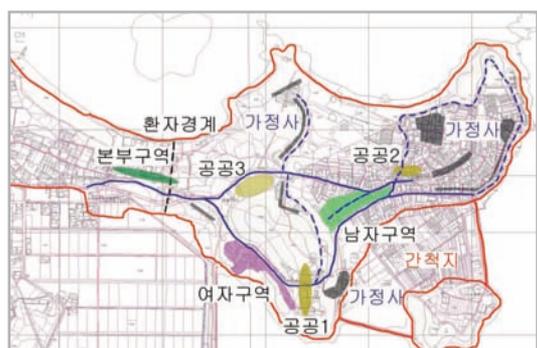
이와 같이 병원, 공부방, 간호사 숙소, 상점 등이 언덕에 집중된 것은, 통제가 필요한 시설을 일정 공간에 집중 배치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상점을 지나면 수용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정상에 이르고, 여기에서 20동의 남자병사, 소나무와 바닷가 사이에 기혼자부락이 환하게 보인다. 조망권이 확보된 언덕 정상에는 예배나 기타 행사를 위한 야외 계단 극장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교회와 병원이 건축된 언덕은 십자 교차로의 결절점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구심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1 참조)

가정 공동체 형성(1934-1942)

1934년 윌슨에 의해 단종을 전제로 한 결혼 허용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허용된다. 윌슨은 일반 한국인들이 주택소유, 가정, 아들 갖기를 소망함을 이해했고, 나환자들도 역시 이런 욕구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윌슨에 의해 시작된 애양원의 결혼 정책은 '남자병사'와 '여자병사'라는 이분법적 마을 구성 체계에, '가정사'가 생겨나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마을이 확산된다. 결혼 정책은 남자 환자들 가운데 애양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자인 목수, 미장, 경작반장, 서기 등을 대상으로, 근면하고 신뢰받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방 두 개와 부엌으로 구성된, 주택 건축공사를 위해 공사비 15원과 함석을 지급하였다.

기존 석조 병사와는 다른 보통의 한옥 구조에 함석 지붕으로 건축되었다. 가정사의 확산은 초기에는 남자병사의 끝에 위치한 분과사무소와 화장장이 위치한 언덕아래까지 작은 환형 도로를 따라 확산되고, 이후에는 애양원의 환자구역 전체에 해안을 따라 고루 분포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 마을의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간척사업을 통한 마을의 확장이었다. 애양원의 간척 사업은 순천선교부 설립 이후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하게 휴양지로 이용한 '조승달 해변'과 신평반도 사이에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립한 것이다. 1936년까지 3년 동안 매립된 애양원 간척지를 통해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그림2 참조)



<그림2> 1936년 애양원 내 가정사에 의한 도시조직 확산

공동체 마을의 정체와 변화(1942-1976)

1940년과 1941년에 걸친 선교사 철수 이후에도 애양원을 관리하다 수감된 탈메이지 선교사가 1942년 추방되고, 광복 이후 1947년 입국한 보이 열 선교사가 1950년 한국 전쟁을 피해 재입국할 때까지 마을의 물리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애양원은 1942년 3월 이후 광복 이전까지 일본의 명목상 단체인 '재단법인 경찰협회 후원회 전남지부'에 의해서 일본인 원장으로 바뀌고, 운영 또한 소록도갱생원의 강제 수용체제로 운영된다. 1946년 윌슨이 재입국 하지만 미

군의 '나병근절 자문관'으로 한국 내 한센병 관련 일체를 부여받게 되어, 직접 애양원의 운영에는 참여하지는 못한다.



애양리 교회

1948년 10월의 여·순사건과 1950년의 한국전쟁을 피해가지는 못하지만, 물적 피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해방 이후 통제의 어려움에서 시작된 정착촌 사업으로, 1962년 시작된 외부 이주로 폐쇄적인 나환자 마을이 영역을 바꿔서 개방된다.

이와 더불어 병원의 운영은 완화된 나환자의 재활에 중점을 두게 된다. 1967년 나환자 병원이 애양원의 환자구역 밖으로 신축 이전하고, 1976년 애양원의 일부를 정착촌으로 만들어 현재의 도성리(도성마을)가 형성된다. 이로써 애양원은 기존의 폐쇄적인 질병 공동체 마을에서 개방되고, 지역 공동체 마을로 오늘에 이른다.

이와 같이 애양리 공동체 마을의 변화에서 드러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일제강점기 한국인 기술력에 의해 '계획된 마을'이 구축되었다. 계획과 설계에 한국인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서양식 건축공사와 구조물 공사 등 마을의 조성이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시 공사에 참여한 한국인은 공중에 따라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조직화되어 있었다. 그들만의 집단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건축물의 기능과 주거용 건축물의 방향 등을 고려한 계획된 마을이다. 이주 초기의 공동체 마을은 구릉지의 6부 능선에 교회, 병원, 학교, 상점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좌우 십자 형태로 배치되었다.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커뮤니티 시설을 가로질러, 동북쪽에 남자병사가 남서쪽에 여자병사가 바다를 향해 각각 배치되었다.
- 3) 마을 도시조직의 변화이다. 그 시작은 결혼정책과 더불어 집단으로 건축된 가정사이다. 신축된 가정사는 기존 마을과 혼재되지 않고 이격되어 형성된다. 바다가 보이는 지역에 선형 또는 면형 조직으로 확산된다. 가정사라는 안정된 점형 조직은 보성농원 등의 면형 조직으로 지역 외로 확산되고, 병원에 예측되어 있던 마을조직이 병원과 분리되어 자체 정착촌으로 변화되었다.
- 4) 자활 공동체 마을이다. 자활 공동체의 성격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지만, 건축, 교육 등 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 특화된 공동체 마을이었다. 특히 자체적인 기술 인력의 양성과 보급은 자활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들 기술 조직에 의해 마을이 확산된다. 이들의 기술력은 부산나병원에 의료인력 총원과 건축 기술자 지원에서 입증되었다. 이뿐 아니라 애양리 마을 자체 폐쇄된 공동체였지만, 환자 경계 밖의 본부구역에 진료소를 운영하여 기존 일반인 마을에 의료혜택을 지원하였다.

환경과 건축, 도시, 그리고 조경



윤기병 교수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과 도시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지구 환경문제 해결은 난망한 것이 현실이며, 건축가는 지구 환경문제의 중요한 시대적 사명을 느끼고 행동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있다. 이는 건축가의 의무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가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의 문제

지구 환경 문제는 아직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상존하고 있으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하여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과거 미국 정부는 과학자들에게 위성 데이터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구름, 숲, 사막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Medea (Measurements of Earth Data for Environmental Analysis) 프로그램은 1992 - 2001년까지 진행되었으나, 부시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NASA의 1970년과 2000년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두 세계 지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실적 입증을 하고 있다. 이 지도는 특히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NASA의 과학자에 의한 온도 분석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는 1880년 이래 평균 약 0.8도C 정도의 온도 상승을 보여 왔다. 그 중 2/3는 1975년 이후 변화가 진행되었다.

건축과 도시의 중요성

지구 환경 변화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주된 요소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들 수 있다.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1/3이 제조업에서, 1/3이 운송에서, 그리고 나머지 1/3이 건축과 도시에서 배출하고 있다. 특히 건축과 도시 부문에서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도시화의 진척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잘못된 도시 개발은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들의 과거 산업사회를 위한 도시개발 모델을 근간으로 개발을 진행할 경우 환경 파괴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게 된다. 즉,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건축과 도시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며, 비록 도시화가 불가피한 현실 일지라도 환경 파괴 없는 도시 건설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도시는 전 세계의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다. 도시에서 소비되는 자원은 지구의 생태계로부터 자원을 조달하고 또한 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 모델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도시의 비중이 선진 사회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사회구조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화석 연료의 소비와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사회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사무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의 행위활동을 의미한다. 즉, 선진국일수록 도시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건축과 도시와 운송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연관 관계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대 건축과 도시 건축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 재료인 콘크리트, 유리, 철강 모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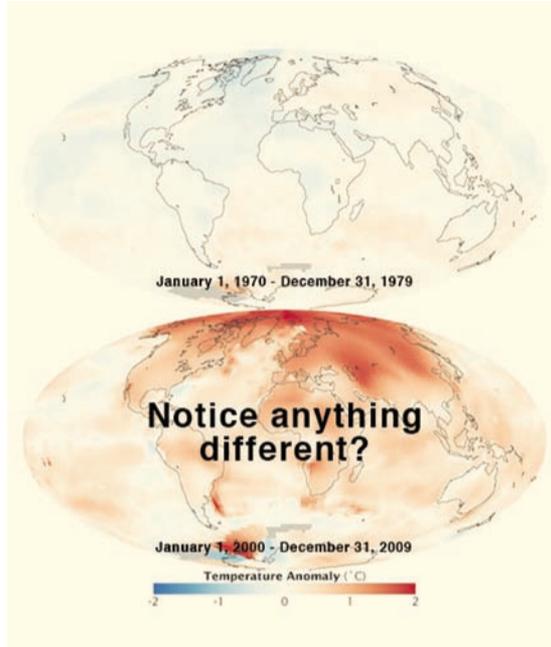


그림 1. NASA의 지구 온도분석 지도. 1970년과 2000년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세계 지도.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의 주 재료인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시멘트의 재료인 석회석을 분해하기 위하여 가열을 필요로 하며, 가열을 위하여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와 함께 석회석 분해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운송부문의 경우 자동차 등의 운송 수단의 연비 등의 효율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도시의 구조에 따른 운송수단의 이용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도시를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구조로 계획하며, 또한 편리한 대중교통 연계수단의 구조로 만드는 것은 운송수단 자체의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건축가 역할의 중요성

이와 같이 건축가의 주된 업무 분야라 할 수 있는 건축과 도시의 분야는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과 도시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지구 환경문제 해결은 난망한 것이 현실이며, 건축가는 지구 환경문제의 중요한 시대적 사명을 느끼고 행동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있다. 이는 건축가의 의무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가를 위한 새로운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건축가는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며, 건축과 도시문제 모두를 다룰 수 있을 때만이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류의 건축가들에 대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는 많은 경우가 있다. **즉, 지금의 건축가의 경우 환경문제를 단순한 부가적 요소로 여기며 실무를 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또한 실제적 환경문제를 건축과 도시 설계 과정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엔지니어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높이 사주며 이에 따른 미래 건축과 도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가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기존 건축가들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건축적 시도

건축과 도시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가의 노력은 이미 UIA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에너지 절약 건축물의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친환경 건축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제 친환경 건축가는 생소한 전문적 건축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건축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능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LEED와 같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친환경 건축물을 평가하는 대표적 인증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



그림 2. 2010 런던 건축 페스티벌을 위하여 만들어진 JellyFish Theatre. 폐기물을 이용하였으며, 자원 봉사자들에 의하여 세워졌다. 화재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만들어 졌다. AJ (Architect's Journal) Small Projects Awards상을 수상하였다.



“건축가는 친환경적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 없이는 현재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축가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과거 건축가들이 보여 주었던 건축 자체의 관점으로부터 보다 넓고 다양한 시야의 확장이 필요하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는 친환경적 공간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수 없다. 도시와 조경 등 보다 넓고 복합적 관점으로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 구축에 기여를 하여야 한다.”

리나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영국의 BREEM 등 국가별로 다양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 건축물의 범주로부터 단지개발 등의 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인증의 영역적 확대가 건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LEED-ND는 단지개발의 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건축가들은 환경적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시험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Junkitecture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도도 환경과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재료로만 집을 지어야 하는 의문과 함께 현재 버려지고 있는 재료를 모아 건축을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즉, 버려져 쓰레기로 폐기되며 이는 지구 환경을 해치는 재료를 모아 건축을 하는 시도이다. 영국 AJ(Architect's Journal) Small Projects Awards 수상작으로 재활용된 재료로 만든 혁신적 건물인 JellyFish Theatre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건물은 Kaltwasser and Kobberling의 주도로 만들어진 임시 극장이다. 2010년 런던 건축 페스티벌을 위하여 £17,000의 예산과 8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120석 규모의 극장을 800여 개의 목재 팔레트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극장은 화재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 건물이기도 하다.

New Urbanism의 등장

환경의 문제는 건축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설계적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보행자 중심의 주거 개발로부터 시작하여 도시계획분야로 확대 보급되어 왔다. 이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개발로부터 이전의 도시 개발 모델로의 회귀로 보행자 중심, 그리고 공공 교통편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과 환경 중심의 개발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다양성의 보장,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 공간과 지역사회, 복합 용도에 의한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적 역사의 보존과 기후와 생태, 그리고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스마트한 성장을 추구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적 접근 방법이다.**

New Urbanism의 개념이 구체화 되면서 Congress for the New Urbanism이라는 단체가 1993년에 발족되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에 있어서 오픈 스페이스를 중시하며, 지역적 역사화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건축과 지역개발계획, 그리고 주거와 직장의 균형적 개발을 추구한다. 도시의 확산을 막으며, 교통 체증을 줄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안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New Urbanism에 의한 도시 확장의 자제와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이 도시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LEED-ND와 같이 지역에서의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유도과 함께 실질적 이산화탄소 배출의 측정 등 정량화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확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과연 New Urbanism에 의한 대응적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New Urbanism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의 패러다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도시

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비평이 일고 있다. 지금의 도시계획은 도시를 폐쇄 시스템으로 보며 종합적이며 결정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New Urbanism은 도시를 폐쇄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문제 해결 방식을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건축의 LEED와 같은 건축물 인증을 통한 친환경적 노력은 도시의 복잡한 맥락 중 한 부분만을 해결한다는 생각이며, 컴팩 시티와 같은 고밀도 개발, 보행자 중심의 지역 사회 개발은 부분적 문제 해결에 불과하다는 비평이다.

새로운 대안적 도시화에 대한 주장으로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Landscape Urbanism에 대한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New Urbanism에 의한 방식으로는 사회적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아갈데 한계가 입장이다. 대신 19세기 이미지의 도시로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건강을 추구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Landscape Urbanism의 등장

조경분야는 과거 건축의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시계획의 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 최근 환경적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환경 디자인의 개념으로 그 분야를 확대하여 왔다. 특히 도시는 그 자체가 폐쇄적이며 정적인 시스템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생태계의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Landscape Urbanism이 등장하고 있다. Landscape Urbanism은 학계로부터 시작되었다. 조경 분야가 건축이나 도시 계획보다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제 해결에 더욱 적합하다는 관점이다.

도시는 서로 다르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또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도시에는 도로와 자동차가 있으며, 어떠한 사람은 고밀도 주거를 싫어하며, 도시와 교외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도시는 항상 불균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는 마치 환경과 유기체와의 관계와 같으며 인간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New Urbanism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자동차 중심적 문화에서 단지 도시 개발을 보행자 및 공공교통 중심으로 한다고 할 경우 사람들이 자동차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순진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 도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이고 시장 주도적이며 유동적인 개방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 도시는 재료와 에너지 흐름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전 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 도시의 영향은 지구적이며, 거대하며,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환경 문제를 다루는 New Urbanism의 수동적문제 해결의 태도는 보다 넓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 미래 도시 만들기에는 그



그림 3. New Urbanism은 자동차 시대 이전의 도시적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그리고 공공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을 추구한다.

꿈이 적다는 생각이다.

Landscape Urbanism의 경우 시간적 요소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도시화는 매우 동적인 과정으로 실제적 피드백을 통한 생태적 시스템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버려진 공간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나 도시 구조의 변화를 통한 지역 재생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Landscape Urbanism은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한 재생을 지정하기보다 '가능성'에 대한 시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Landscape Urbanism은 현재 이론적 담론이며, 도시의 문제를 조경의 관점에서 대화를 통해 확장하려 하고 있다. 현재 명확한 이론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중요 결점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도시적 맥락을 어디까지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렇게 도시의 문제를 단순화 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로 구성할 경우 어떠한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Landscape Urbanism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현재의 가시적 결과물이나 명확한 대안을 내 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문제해결의 화두만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건축가는 건축물 이외에 도시 및 조경 모두를 다루는 전문가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의 공간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는 이들 분야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다. 건축가는 친환경적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능력 없이는 현재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축가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과거 건축가들이 보여 주었던 건축 자체의 관점으로부터 보다 넓고 다양한 시야의 확장이 필요하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는 친환경적 공간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수 없다. 도시와 조경 등 보다 넓고 복합적 관점으로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 구축에 기여를 하여야 한다. 환경적 문제 해결 능력을 근간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공간환경 구축 능력의 개발과 공헌이 건축가를 살리고 또한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과 문화의도시 전주시에서는 2000년부터 2년마다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여 설계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물에는 아름다운건축상 동판을 부착하여 건축인의 자긍심을 주고있다. 수상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시민의 관심을 재고시키고 건축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대 상 전주우체국청사
- 금 상 우진문화공간
- 은 상 전주성결교회
- 동 상 동화속어린이집

2010년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대 상

전주우체국청사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 작 품 명 : 전주우체국청사
- 설 계 : 이관표 건축사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5-4번지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건축면적 : 3,742.86㎡
- 연 면 적 : 14,490.22㎡
- 건 폐 율 : 35.38%
- 용 적 율 : 107.19%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우체국 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디자인 혁신추구, 도시맥락에 순응하는 랜드마크로서 지역주민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생활의 중심 장소 제공, 주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터랙티브 공간구축, 전주의 역사적 특성반영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전주 우체국청사는 공공영역으로서 역할수행과 효율적 업무처리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금 상

우진문화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우건축



- 작 품 명 : 우진문화공간
- 설 계 : 최근영 건축사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62-1
- 용 도 : 전시실, 공연장
- 건축면적 : 1041.78㎡
- 연 면 적 : 3481.54㎡
- 규 모 : 전시관-지상 3층, 지하 1층
공연장-지상 2층, 지하 1층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소형문화공간으로서 도심속의 자연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공원속의 문화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간을 형성하고자 적극적인 조경설계를 하였으며 담쟁이 넝쿨로 건물외벽에 푸르름을 더하여 노출콘크리트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을 연출하여 길 건너에 있는 전주천 화산공원과 아름다운 조화를 꾀하였다.

은 상

전주성결교회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주 영화의 거리에 인접한 전주 성결교회는 지역 주민과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공간 배치를 하고, 정면을 바라 보았을 때 3개의 곡선화된 벽체디자인은 삼위일체, 타원형 지붕디자인은 달걀 즉 부활의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올라와 있는데 기독교인의 '인간을 창조한 높은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

- 작 품 명 : 전주성결교회
- 설 계 : 김남중 건축사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41-1번지
- 용 도 : 종교시설
- 건축면적 : 1,219.86㎡
- 연 면 적 : 3,880.11㎡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동 상

동화속 어린이집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 작 품 명 : 동화속 어린이집
- 설 계 : 주영민 건축사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718-21
- 용 도 : 어린이집
- 건축면적 : 599.04㎡
- 연 면 적 : 1,896.15㎡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기존 건축의 한정된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원칙과 아동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동화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하여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사용자가 친근감을 느끼면서도, 변화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차분한 분위기의 밝은색 치장벽돌을 바탕으로 창대 상하부 및 수평띠는 인조석 몰딩으로 구성하고, 그 상부는 밝은색 본타일로 마감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도,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그리는 건축사

김유지 건축사는 그림 그리는 건축사로 유명하다. 광주광역시 건축사협회 미술동호회 회장, 광주 일요화가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33여 년째 매월 3째주 일요일은 그림 그리기 외의 일은 절대사절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도 시간이 허락되기만 하면 그림 그리기를 즐긴다고 한다. 작품활동도 왕성히 하여 농협에서 선정하는 우수 건축가상을 3번(1998년, 2000년, 2001년)이나 수상하여 최다 수상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 테니스연합회 회장, 광주 생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 또한 활발히 수행하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김유지 건축사
유지 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요작품 : 유지 건축사사무소 사옥(2001년), 조선대학교 장례예식장(2002년), 영광농협(2011년) 등

2월의 어느 날 서재형 건축사와, 필자, 광승국 기자가 광주광역시청 앞에 자리하고 있는 유지 건축사사무소의 사옥을 방문하였다. 김유지 건축사와의 인터뷰 약속을 잡기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그가 너무도 왕성히 활동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인터뷰 도중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설계사무실은 4층에, 그의 작업실은 6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6층의 작업실은 온통 책과 그림 등으로 빼곡히 차 있어서 평상시 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김유지 건축사는 광주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건축인으로, 인터뷰 내내 자기 철학이 분명하고 성실하며 열정이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 건축인과 직접 마주하며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고, 기자로서 보람도 느꼈다.

건축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

일찍이 미대지망생이었으나, 고3때 담임선생님이 "너는 미술, 특히 기하학 방면에 소질이 있어 건축과가 더 적성에 맞을 것이다.", "건축을 하면서 그림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내겐 건축이 천직이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지구상에 어떠한 직업보다 잘 선택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인을 뽑으신다면?

문화건축연구소 故 김호근 건축사님입니다. 19세였던 건축학 1년 시절, 건축의 걸음마도 하기 전인 초년생을 건축기초설계는 물론 학비까지 도와주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뜨거운 감정을 주신 그 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건축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

제가 설계, 감리하여 새롭게 태어난 건축물을 두고 건축주가 만족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시할 때 건축사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미숙하고 어리숙하게 설계하여 그 건축물이 앞으로든 수

십년간 못 사람들에겐 불편함을 끼친다고 생각될 때는 무척이나 부끄럽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신다면?

지나고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건축인생이었지만 조선대학교 장례예식장, 영광농협 사무소 및 하나로 마트,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유지 건축사사무소 사옥



영광 농협 종합청사 투시도

특히 사옥인 유지빌딩은 후면 증축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입니다. 일반인에게 "나도 디자인하고 싶다. 아, 이렇게도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노출콘크리트 위로 담장이가 뒤덮여 보는 이들이 4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건축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술활동에 대한 입문동기, 작품활동 등에 대하여?

"지금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건축사로서의 길을 가면서 제가 꿈꾸던 미술활동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제게는 건축이 그림이고, 그림이 건축입니다.

'광주일요화가회' 라는 모임을 통하여 매월 세 번째 일요일이면 경치 좋은 곳에 나가 스케치하여 2010년으로 벌써 32회째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미술동호회' 라는 모임을 만들어 시간이 나는 대로 야외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13년, 13회째 전시회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또한 '전국 건축사 미술동호회' 도 2010년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자연에 나아가 캠퍼스를 펼치면 나는 산이 되고 물이 되고 파아란 하늘이 되어 그 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돌아올 땐 그 산과 물과 내 마음이 즐거워 있음을 담아서 오게됩니다.

사회봉사활동?

"남자라면 세상을 향하여 한번쯤은 좋은 일을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s man(국제우호봉사단체이며 YMCA를 도와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한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장애우돕기 등에 앞장서서, 광주알파클럽회장(1997)및 광주지방지방장(1997-1998)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주서구테니스연합회 회장(1998-2000), 광주광역시테니스연합회회장(2005-2009), 생활체육회 이사(현재) 등을 하면서 건강과 친목을 다지고, 광주시 시민감사관(2005-현재) 활동 및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방위협의회, 치평동 방위협의회 활동 등을 통하여 동네이웃주민과도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견문도 넓히고, 봉사를 통하여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알리는 기회도 되었다고 봅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가는 기대는?

건축주에게 신뢰 받는 건축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축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건축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건축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며, 건축뿐 아니라 이 사회를 아우르는 정치가 내지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힘닿는 데까지 열정을 가지고 건축활동과 미술활동,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으며 후일 멋진 언덕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취재·정리 : 신영은 건축사기자 archsy@naver.com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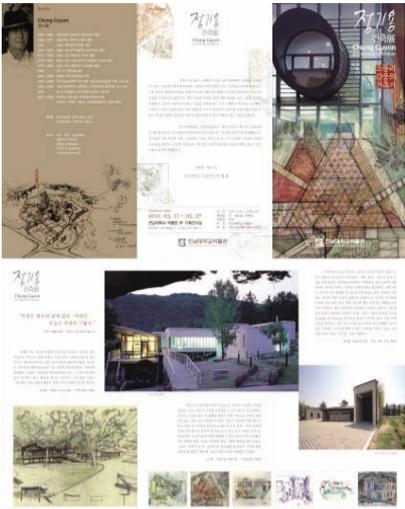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외 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 독 료 입 금 계 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전남대학교 박물관 "정기용 건축展" 개최

-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 전시실에서



도서관 등의 작업을 통해 건축의 공공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건축가이다. 이는 지역 사람들을 모으고 위로하며 그들의 삶 속에 어울려 지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건축 사례로 들 수 있다.

전시에는 건축 사진과 모형, 스케치와 드로잉, 작업 노트 등 건축 관련 자료가 출품되어 있으며, (주)기용건축 건축사 사무소의 도움으로 5월 27일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건축전이 준비될 예정이다.

정기용은 197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하고 1986년 기용 건축을 설립했다. 현재 성균관대 석좌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문화재 위원으로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 도시건축집단 UBAC에서 작업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예루 학생기자 kimyeru@hanmail.net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오는 2011년 3월 11일부터 정기용 건축가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흙 건축의 대가', '공간의 시인', '감응의 건축가', '생태 건축가'라 불리는 정기용은 지역 공공건물, 학교,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 후보자 공개토론회 개최

- 「건축문화사랑」주관으로 진행, 선거판세에 영향



지난 2월 15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와 건축문화사랑, 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본지 박홍근 편집위원장의 사회로 회장선거 후보자였던 심상봉 건축사, 김후진 건축사, 강석훈 건축사의 공약 정책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약 50여 명의 건축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에 걸쳐 후보자별 기조연설, 공동 질의응답, 방청석 회원 개

별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유권자 회원은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2년 동안 광주건축사회를 이끌어갈 회장 책임자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공개토론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문화사랑에서는 이번에 열린 공개토론회 내용을 호외로 발행하여 지난 3월 4일날 열린 제24회 정기총회 이전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전남대, 목포대 건축학교육인증 획득

- KAAB로부터 최고등급 '5년 인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와 목포대학교 건축학과가 KAAB로부터 최고등급인 '건축학교육 5년인증'을 획득하였다.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모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으로부터 2010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 실시를 받으며 2011년 1월 31일 건축학교육인증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받았다.

두 대학 모두 이번 교육인증 획득을 통해 건축학전공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기관 및 업체로부터 졸업생들의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취업률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AB 인증 교육을 받은 학생은 현재 논의 중인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을 면제 받고 소정의 실무수련 기간을 거쳐 곧바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상호 교육인정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6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KAAB 주관으로 국내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졸업생 배출 실적을 갖추고 예비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며 심도 있는 인증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예루 학생기자 kimyeru@hanmail.net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봉석 학생기자 bsnyx@naver.com

방호 주거시설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일반 공개 공모방식으로 3월 27일 18시까지 접수



인터넷 건축전문 블로그 Abrief 주관으로 현재의 남북 긴장관계 상황을 고려한 재난 대비형 벙커 및 주거시설물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상존하는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를 염두에 두며, 북한의 포격 등 도발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거시설물에 관한 아이디어공모전이다.

일반 공개 공모방식으로 개인 혹은

3인 이하의 단체로 참가가능하며 참가 등록방법은 공모전 사이트 (<http://www.abrief.net>)의 벙커 디자인 공모전 항목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abrief_compe@gmail.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비는 2만 원이며 3월 27일 18시까지 입금계좌(하나은행 705-910017-21504, 예금주: 아이엠아키텍츠)로 입금하면 된다.

시상으로 1등-1작품: 300만원 및 상장, 2등-2작품 50만원 및 상장, 3등-3작품 상장이 수여되며 세부사항은 공모전 사이트의 벙커디자인공모전을 참조 하길 바란다.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 학생기고 ● '빛나는 졸업장'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 합니다' 바야흐로 전국의 대학 졸업 시즌이었다.

졸업시즌을 맞은 대학가에 가족 없이 혼자 졸업식에 참석하는 일명 '나 홀로 졸업식', 졸업식장에는 가지 않고 학교 사무실에서 졸업장만 찾아가는 '과 사무실 졸업식'이 씁쓸하지만 새로운 풍속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 심각해진 취업난 때문에 빛어진 현상들이다. 졸업식을 마친 뒤 취업스터디 그룹으로 직행하는 모습도 낯설지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가 주변 꽃집이나 중국집, 레스토랑 등의 졸업식 특수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학교에 자주 못 갈 것 같아 학사모를

쓴 채 무인발급기에 길게 늘어서 취업용으로 쓸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대량으로 출력하는 졸업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IMF와 세계 경제공황 등의 자본주의라는 괴물에 철저히 희생되어왔던 우리의 부모들. 하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끝없이 흘려왔던 피와 땀의 대가를 적어도 이날 하루만큼이나 보상받아야 마땅하거늘 대학의 졸업 풍경은 가족들과 교수님과 졸업생의 팽팽한 긴장 속에 그저 미소 짓는 사진 한 장을 남길 뿐이다.

취업이 되지 못하면 졸업식이고 청운의 꿈이고 'Boys be ambitious'도 없는 것이다.

중요한 사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집단의 삶은 메마르기 마련이다. '빛나는 졸업장'이 아니라 '빛나는 졸업장'이 되려면 건축학도에 대한 기성 건축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석 학생기자 archifly@nate.com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 태 호

- 25년 공사원가분석
-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062)512-8044 HP:010-3602-3378

건축문화사랑, 제1회 대학생기자와의 간담회

-신정철 발행인 "학생들의 참여가 건축문화 발전에 밑거름 돼"



건축문화사랑에서는 지난 2월 28일 광주건축사회관 인근 식당에서 제1회 대학생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기자들과 향후 본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건축문화사랑 신정철 발행인을 비롯하여 광주·전남·전북 편집위원, 각 대학 학생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약 2시간여에 걸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신정철 발행인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건축문화사랑이 짧은 시일에 광주·전남·전북의 대표적 건축신문으로 자리 잡는데 대학생자들이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향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박흥근 편집위원장은 "학생기자들의

활동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여러 계층과의 소통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본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학생기자 임기를 마치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는 "1년 동안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신문을 통해 건축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편집위원님들과 여러 학생기자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직간접적으로 예비 건축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임기를 마치는 소감을 말했다.

한편 건축문화사랑에서는 향후 대학생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동기부여를 위해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곽승국 전남기자 ksk830710@hanmail.net

News 광주 건축계 동정

*입회

- 김익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울림
→ 광주 서구 농성동 321-3번지

*변경 (소재지 변경)

- 전승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 광주 북구 신안동 124-10 (4층)
- 위태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도엔지니어링
· 광주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401호
- 박신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림
· 광주 서구 쌍촌동 1239-7 (4층)

News 전남 건축계 동정

*입회

- 한만호 건축사 / 한성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63-19
- 유성우 건축사 / 유성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63-5
- 박수현 건축사 / 광양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007-9
- 전진호 건축사 / 진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89-6
- 박병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 전남 순천시 풍덕동 한신APT 나동 상가 B101호
- 박미진 건축사 / 해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중앙동 5-1, 대성빌딩 2층

*재개업

- 문성현 건축사 / 창외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44-5

News 전북 건축계 동정

*입회

- 정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즈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96-10
- 이용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0-3
- 서봉욱 건축사 / 아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김제시 요촌동 595-4
- 김영길 건축사 / 선 건축사사무소
· 익산시 남중동 76-16

*결혼

- 김용균 건축사 / 삼성 건축사사무소
· 장남 - 2월 27일(일)
- 주광수 건축사 / 예성 건축사사무소
· 장남 - 3월 12일(토)

*부고

- 최성규 건축사 / 수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월 18일(금)

*변경 (소재지 변경)

- 추현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래
· 전남 여수시 학동 98-2
- 문진환 건축사 / 금강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510-2
- 백종민 건축사 / 라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31-4

*부고

- 정종민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2월 10일(목)
- 김용정 건축사 / 새중앙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2월 18일(금)
- 김용휘·김용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피아·마루
· 부친상 - 02월 22일(화)
- 변형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 빙모상 - 02월 23일(수)
- 김형규 건축사 / 가영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3월 04일(금)

*변경 (소재지 변경)

- 서문용진 건축사 / 서문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34-15
- 송영섭 건축사 / (유)영화 건축사사무소
·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17-13
- 한민 건축사 / 한민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39-1
- 김현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대자인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2-3

*부고

- 최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 빙부상 - 2월 20일(일)

전주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 개최

- 3월 24일(목) 10시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전주시건축사회 회장 입후보자 (좌 이준수 건축사, 우 김남중 건축사)

전주시건축사회에서는 3월 24일 목요일 10시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제23회 정기총회는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부의안건으로 2010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안) 심의 승인의 건, 2011년도 회비 수납 기준(안) 심의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상정되며, 특히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은 전주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으로 전북지역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건축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이준수 건축사(엔드림 건축사사무소)와 김남중 건축사(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입후보자가 등록하였다.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편집인 박흥근
전담기자 곽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장성호, 송명욱, 김기범,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어번폴리 프로젝트!
광주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킬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들의 작품을 기대하며 올해 9월 개막식이 기다려진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강 만 수 창원기공주)	100만 원
문 형 록 반석기초이앤씨(주)	100만 원
장 병 업 초석건설산업(주)	100만 원
정 태 호 (건축사사무소 영일.필	20만 원
AD그룹 건축사사무소	50만 원
알파시스템창호(주)	50만 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산수에서

공부의 즐거움

강선영
출판 프리랜서

● 한편의시

神木

문창식 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논어(論語)의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경구는 중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귀에 익숙한 말이다. 보통은 공부의 중요성을 부연하는 말로 여러 곳에서 회자되곤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의 진미(珍味)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지 자못 의심스럽다.

요즘 한창 방송중인 모 학습지의 광고에서 초등학교 3~4학년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 모델이 자못 비장한 표정으로 "나는 나를 위해 공부한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나는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공부하니? 유명 대학에 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아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요"라고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너무나도 속절없는 것임을 또한 잘 알고 있다. 그 대답을 하려면 아마도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회사에 취직한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라는 자문을 하게 될 즈음이라야 하지 않을까. 그때 비로소 새롭게 마주하는 공부야말로 '나를 위해 하는 즐거운 공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 나는 거의 매일 왕복 네 시간을 투자해서 인문학 강좌를 들으러 다녔다. 공대를 나와 처음 출판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왜 공대를 나와 출판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지만, 정작 나는 인문학과 출신의 편집자들에 대하여 한 치의 열등

감도 없었다. 당시 기본 독서량은 물론이요, 출판에 필요한 직능으로 쳐도 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평소 이러저러한 인문학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특별한 지침 없이도 오직 책에서 제시해 주는 길을 따라가며 스스로 깨우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주어진 일감을 해결하기 위해 봐야 하는 참고서적의 목록이 늘어나면서 인문학 공부는 점점 더 내게서 멀어져 갔다. 생활에 쫓기는 삶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생각은 화석처럼 굳어져 마침내 모든 일상이 시시껄렁하게 말라비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불혹의 나이를 지나 잘 짜 맞춰진 기계처럼 무미건조하게 돌아가는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그 무엇, 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지천명의 나이와 화합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새로 시작하는 공부' 곧 '온전히 나의 삶을 즐기기 위한 공부'였다.

그렇게 새로 시작한 인문학 공부는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화석처럼 말라비틀어진 내 삶에 촉촉한 생명의 물기를 뿌려주고, 구멍 난 삶의 공간을 채워주는 공부. 노안으로 어두워진 육체의 눈을 보완해 주는, 그리하여 개명천지의 신세계를 밝혀주는 심안(心眼)을 갖게 해 주는 불역설(不亦說乎), 즐거운 공부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이다. 늙어가면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공부, 즐거운 공부'임을 깨달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지천명의 천기누설이 아닐까.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 닦여간다고
가까이 가기 두려워 합니다
영매의 눈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천 년은 능히 묵었을
용 등걸처럼 솜은 뿌리 사이엔
만장이 파란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느끼기엔 따뜻한 기운이 서린듯하지만
그녀도 신목도 가까워지지 않으려 합니다

보이지 않은 연의 고리
나는 계단 삼아 걸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유년의 어둠을 밀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유월의 나뭇잎들
파란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안에서
소신공양으로 남은 어릴 적 무병
멀리 흰 구름 말갈게 오고 있습니다
비로소 한 무더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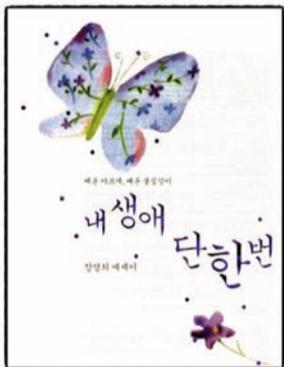


BOOK 내생애 단 한번

내생애 단한번

글쓴이 : 장영희 / 펴낸곳 : 샘터

박지영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故 장영희 교수의 유작 전의 소설이다. 보니 꽤 유명한 번역가이다. 통소여의 모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우리가 알만한 글들을 번역하였다. 서강대 교수이자, 여러 곳에 칼럼을 내신...

故 장영희 교수의 아버지도 번역가로서 전설적인 분이다. 아버

지와 공저한 영어교과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만 두려다가 아버지와의 영원한 추억이 될 교과서를 완결 지은 것이다.

쇼아마비로 걸터다니는데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녀는

아주 아이였을때 부터 작고할때까지 목발과 함께 평생을 세발로 살아간 그녀다. 한없이 부드럽고, 가녀리고 감성적인 그녀의 그들에서 보여지는 면과 교수로서의 카리스마 넘치고 냉철하고,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그녀의 면에서 어떤 것이 진짜일까. 둘다 일까?

하지만 그녀는 후자의 경우 걸로 보여지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가 자신에게 가깝다고 한다.

이 책은 에세이다. 유학생활, 교수생활,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훈과 자기 자신에게 교훈을 주고 반성하는 자기반성적 에세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명예는 자신의 잘못에도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을 질책하며 반성한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자기위안을 하면서 마무리가 결국은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녀이다.

누구나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이 인색하다는것은 안다.

알면서도 못하는것,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여기에서 그녀는 유언에 관해서도 말한다. 그리고 평생 희망을 놓지 않는 그녀... 우리에게 말한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최악이다."라는 말을 빌어서 말이다.

이 책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건축적이지는 못하지만 건축을 포함하여 일생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 등을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항상 지니며 더욱더 발전적인 건축인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건축사 Gallery



8F oil painting

언제쯤...
자연은 그곳에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애써 봄이라 하네.

김주연 건축사 작

Photo



강정천에서 바라본 범섬의 일출

숙취가 가시기도전에 의식이라도 치르듯 가방메고 밖을 거닌다.
제주의 새벽찬공기가 폐를 짓누른다.
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는 하늘이 내게 좋은 풍광을 주지않으려나...
그렇게 추위와 싸우며 범(虎) 마냥 그렇게 한시간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 한장을 뷰파이더에 담기 위해..

박종호 건축사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

ROTARY PILE 공법

나선형 회전운동으로 지반에 삽입하여 주변 마찰과 선단지지함으로써
압축과 인장력에 강한 지지력을 최대화한 친환경 파일 공법



시공사례



부천고강동 공영차고지



군산 한산공장



군산 OCI 공장



파주 한양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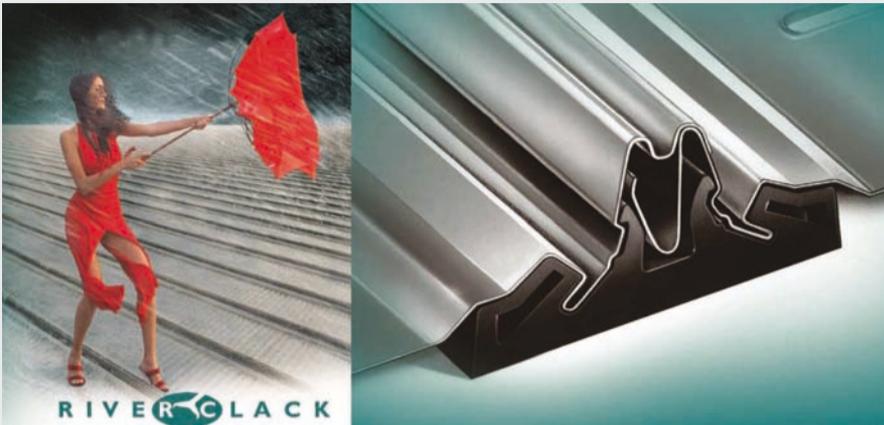


속초 한화리조트



건축물의 가치향상,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

초석건설산업(주)이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RIVER CLACK
THE FLAT ROOF METAL COVERING SYSTEM

저희 초석건설산업(주)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신공법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며 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실적보다는 미래의 VISION을 제시하고 실행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을 위해 책임있는 설계품질, 시공품질, 최고의 품질경영과 기술개발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 병 업**



나주 국민체육센터



완도 수협활어유통센터



장흥 우산도전망대



완도 수협활어유통센터



무주 반딧불천문과학관



광주 국악전수관



장성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전시관



부안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부천 가톨릭대학교 150주년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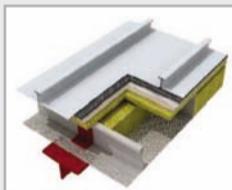
청도 솔리움타운하우스



치평동 근린생활시설



돌출이음



각행돌출이음



평이음



가락이음



리빌패널



골패널

품 목

티타늄-아연판(ZINK), RIVER CLACK, (산화)동판, AL SHEET(지붕재, ECOTEEL(접합강판), 링클수지강판, 스테인레스(지붕재), 칼라강판, 고밀도목재패널



초석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구영드림빌 613호
TEL.(062)381-1138 FAX.062)381-1139